

동문 탐방코너



우원상

(학사 05 석사 08)

[현재] 법률사무소 지을 대표변호사

기=학생기자 동=동문님

안녕하세요, 수리과학과 소식지의 학생기자를 맡고 있는 16학번 이아로입니다. 선배님의 이야기를 지면에 실을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배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리과학과 학사05, 석사08 졸업생인 우원상 변호사입니다. 저는 석사 졸업 이후 바로 한양대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 2회 합격 후 공익법무관 복무를 거쳐 현재는 수원시 소재 법률사무소 지을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리과학과 소식지 독자들을 위해 선배님께서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변호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소송이지만 저는 문체부 및 소속기관, 유관기관을 고객으로 하는 자문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도 하고 있는데 국선사건, 캠프 등 공적 조직의 의뢰사건, 그 밖에 법률구조업무로서 양육비 소송업무나 북한 이탈주민 관련 소송업무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개최한 제1회 우수법률구조수행변호사 시상식에서 우수법률구조수행 변호사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상은 어떤 상이며, 이때 수상하셨던 배경과 소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법률구조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변호사선임비를 포함한 법적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일선에 있는 저와 같은 개업변호사가 자발적으로 이 구조제도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을 당시 제가 다소 열심히 했다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상을 주셨고 지금도 법률구조 업무는 주요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사 졸업 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KAIST에 재학 중이셨을 때에는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용정 교수님 연구실에서 미분방정식 분야를 연구하였습니다. 화학반응을 미분방정식으로 해석하는 연구를 하려고 하였는데 잘 되진 않았네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지적재산권법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셨는데, 특별히 이 분야의 박사과정을 수료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계기 중 하나가 저작권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하여 더 깊이 공부하고자 박사과정 진학을 하였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와 수리과학과는 언뜻 보기에 큰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처음 수리과학과에서 법조계 진출을 결심하셨던 계기가 궁금합니다.

석사 진학 이후 제가 수학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진로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다가 저작권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로스쿨로 제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를 잘 타서 법조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KAIST 수리과학과에서 수학을 공부했던 경험이 법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처음 법을 공부할 때 특별히 겪으셨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수학이나 법학 모두 기본적 구조는 논리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체득한 논리적인 사고 부분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만, 사회현상이 수학이라는 학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법학은 특성상 사회현상의 해석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에 영향을 받아 정답이라는 개념이 없이 최선책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처음에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수리과학과에 재학하며 법조계, 혹은 다른 비이공학 계열로의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조언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KAIST가 종합대학이 아니어서 다른 분야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이에 앞서 사전적인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선배들 혹은 주변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다른 분야로 진출하셔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KAIST 수리과학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저같이 그다지 주목받던 재능을 가지지 않더라도 어울리는 역할을 찾으면 이런 영광스러운 인터뷰를 할 수 있으니 현재 상황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탐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본 학과



정년퇴임식

카이스트 수리과학과를 위해 초창기부터 헌신해 오신 서동엽 교수님, 진교택 교수님, 곽도영 교수님의 퇴임식.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우리 모두의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자연과학동 리노베이션

정든 자연과학동 건물이 세련된 모습으로 새단장합니다. 지금은 공사 소음으로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아요.



두 명 장학금, 두 명 펠로우십

미원 상사 '두 명 장학금'과 '두 명 펠로우십'을 받게 된 4명의 학생, 박대한 박사 모두 축하합니다. 장학금 취지처럼 두 명 이상,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4면 학생수기에서 이어짐

URP 프로그램은 학부생이 연구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URP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의 전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과 "알고 싶은 것"을 명확히 하고 연구의 개략적인 방향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를 마무리한 후 URP 워크숍에서 발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연구하기 전 아주 많은 지식과 사전 공부が必要하다고 생각하여 주저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학부와 대학원 과목들을 모두 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과목을 들어도 부족한 것은 많으며 특정 연구를 하기 위해 모든 과목에서의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업을 통해 어느 정도 충실히 기본기가 쌓였다면, 관심사를 쫓아 스스로 공부해 보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5학기 정도 공부를 마쳤다면, 관심이 있는 영역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연구도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연구를 경험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수리과학과 학부생 여러분들께서도 URP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 시절 연구를 접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